

중.동구 EU 가입 현황 및 대응방안

2002. 5

해 외 조 사 팀

목 차

I. 중.동구 EU 가입 추진배경 및 의의

II. 중.동구 EU 가입 추진현황 및 전망

III. EU의 중.동구 진출현황

가. 수출입동향

나. FDI 동향

IV. EU 확대에 따른 유럽 및 일본 대기업 진출사례

V. EU 확대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진출에 미치는 영향

다. EU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VI. EU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유망분야

가. 수출유망분야

나. 투자진출유망분야

I. 중.동구 EU 가입 추진배경 및 의의

□ 세계 최대 지역블록인 EU가 2004년부터 중.동구 10개국 및 지중해 연안 3개국을 EU로 편입할 예정임에 따라 제5차 EU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중임.

- 1957년 프랑스, 이태리,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EU 전신인 EEC 결성
- 1973년 1차 확대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 1981년 2차 확대 (그리스)
- 1986년 3차 확대 (포르투갈, 스페인)
- 1995년 4차 확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2004년부터 5차 확대예정
 - 중.동구 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지중해 연안 3개국 : 사이프러스, 몰타, 터키

□ EU의 중.동구 확대 배경은 정치적 측면, 외교.안보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정치적 측면

-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중.동구 정치 및 사회가 매우 불안해졌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 독일이 주장한 EU 심화론(시장단일화)과 영국이 주장한 EU 확대론(중.동구로의 개방)이 대결, EU는 심화론에 우선 주력하기로 함.
- EU 심화론이 '99년 유로화 도입으로 일단락 된 바, EU 확대론인

중.동구의 EU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교.안보 측면

- 1990년대 초 중.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과거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가지고 있던 서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EU 확대 거론
- 안보면에서도 중.동구 안정은 서구 안보와 직결되므로 EU 편입을 통해 중.동구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전략 필요

○ 경제적 측면

- 확대를 통해 EU는 인구 3억 8천만명에서 4억 8천만명, GDP 8조 5천억불에서 8조 9천억불, 수출 2조 2천억불에서 3조 2,000억불로 증가
- EU 입장에서는 생산기지 확보, 소비시장 확대, 기술집약적 제품 수출시장 확보 효과를 볼 수 있음.
- 중.동구 국가 입장에서는 EU로부터의 재정지원,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 고용증대, EU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업 제품의 수출시장 확보 도모 가능
- 1997년 실시된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중.동구의 EU 가입으로 기존 EU 15개국은 100억불의, 신규 가입 10개국은 230억불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함.
- EU 집행위가 2001.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EU 확대에 의한 GDP 추가 성장율이 중.동구 10개국은 매년 국별로 1.3~2.1%, EU 15개국은 매년 0.7%에 달할 것이라고 함.

<중.동구 10개국을 포함한 EU 현황>

구 분	2000년	2004년 이후
회원국	15개국	25개국
인 구	3억 8,000만명	4억 8,000만명
면 적	3,289천 m2	4,315천 m2
GDP	8조 5천억불	8조 9천억불
1인당 GDP	22,672불	26,162불
수 출	2조 2천억불	3조 2,000억불
수 입	2조 2천억불	3조 1,000억불

* 자료원 : World Economic Outlook

□ 제5차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가의 수, 면적, 인구, 기존가입국과 신규가입국간 GDP 격차, 문화 및 역사의 다양성 면에서 지난 1~4차 확대와는 현격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음.

□ 결론적으로 EU의 동구확대는 중.동구 국가들로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작업의 완성을, EU로서는 유럽통합의 한 축인 확대작업의 종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음.

II. EU 확대 추진현황 및 전망

가. EU확대 추진약사

연도	회담지역	주요 결정사항
1989년		. 베를린 장벽 붕괴 . Phare (Poland and Hungary Aid for economic Restructuring) 프로그램 창설
1990년대		. 중.동구 10개국과 유럽협정 (Europe Agreements) 체결
1993.6월	코펜하겐, 정상회담	. 동구확대 정식 결정, 포괄적 가입요건 제시
1994.12월	에센, 정상회담	. Pre-accession strategy 착수, AP 체결
1995.12월	마드리드, 정상회담	. '96년 정부간회의(IGC)가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가입협상에 착수기로 결정
1997.6월	암스테르담, 정상회담	. 암스테르담 조약 채택, 가입을 위한 토대 마련
1997.7월	EU집행위	. Agenda 2000 채택
1997.12월	룩셈부르크 정상회담	. 중.동구 10개국 EU 가입신청서 접수
1998.3월	제1차 유럽회의 개최	. 1차 가입협상대상국인 6개국과 가입협상 개시, Accession Partnership 채택
1998.4월	EU 집행위	. 가입신청 10개국 및 사이프러스에 대한 Screening 작업 착수
1998.11월	EU 집행위	. 1차 평가보고서(Regular Report) 채택
1999.3월	베를린 정상회담	. 2000-2006년 Phare 프로그램 채택
1999.10월	EU 집행위	. 2차 평가보고서 채택 및 AP 개정
1999.12월	헬싱키 정상회담	. 나머지 6개국과의 가입협상 착수 승인
2000.2월		. 2차 가입협상국과의 협상 착수
2000.11월	EU 집행위	. 3차 평가보고서 채택
2000.12월	니스 정상회담	. 5차 EU 확대시점을 유럽의회 선거 (2004.6월) 이전으로 규정
2001.6월	고텐부르크 정상회담	. 2002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확인 니스 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
2001.11월	EU 집행위	. 제4차 평가보고서 채택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Enlargement

-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Phare 프로그램 창설
 - EU는 중.동구와 외교관계 수립, 수입쿼터 철폐, GSP 확대, 무역 및 협력협정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s) 체결
 - Phare 프로그램 창설
 - 중.동구에 대한 세계최대 지원 프로그램으로 동구권 체제전환과 경제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도, 투자지원 포함

- 1990년대 초까지 유럽협정(Europe Agreement) 체결
 - EU와 중.동구 10개국간 준회원국 관계 형성
 - 자유무역 실현(무관세, 수량제한 철폐), 자본이동, 경쟁법, 지적소유권, 산업재산권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통해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까지 염두에 둬.
 - 터키('64년), 사이프러스('73년), 말타 ('70년)와는 이미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EU 가입 후보국들의 유럽협정 체결현황>

국가명	유럽협정 서명	유럽협정 발효	EU가입 신청
헝가리	1991.12	1994.2	1994.3.31
폴란드	1991.12	1994.2	1994.4.5
불가리아	1993.3	1995.2	1995.12.14
체코	1993.10	1995.2	1996.1.17
루마니아	1993.2	1995.2	1995.6.22
슬로바키아	1993.10	1995.2	1995.6.27
에스토니아	1995.6	1998.2	1995.11.24
라트비아	1995.6	1998.2	1995.10.13
리투아니아	1995.6	1998.2	1995.12.8
슬로베니아	1996.6	1999.2	1996.6.10
터키	1963.9	1964.12	1987.4.14
말타	1970.12	1971.4	1990.7.16
사이프러스	1972.12	1973.6	1990.7.3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터키, 말타, 사이프러스와는 준회원국 협정 체결 및 발효일임.

□ 1993.6월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정상회담), 포괄적 가입요건 제시

- 정치적 요건 : 민주주의, 법의 통치, 인권존중, 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정치체제 및 기구의 완비
- 경제적 요건 : 시장경제의 정비 및 EU내 시장경쟁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
- EU 규정 및 정책 준수 요건 : 정치적, 경제적 및 통화동맹 등 EU의 목적을 존중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

□ 1994.12월 에센 유럽이사회(정상회담)

-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EU 가입 준비를 위한 Pre-accession strategy 착수
- . 중동구 10개국과 가입 파트너십 (Accession Partnership) 체결
- . EU의 기술 및 재정지원(Phare)을 위한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규정
- . EU의 법률을 자국의 법률로 채택하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유

□ 1997.6월 암스테르담 정상회담

- EU는 로마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암스테르담조약 (Treaty of Amsterdam) 채택, 정부간 회의 성공적 마무리
- '98.1월부터 중.동구 국가들과 가입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EU가입 협상을 위한 세부보고서를 12월까지 제출토록 요청

□ 1997.7월 EU집행위 Agenda 2000 채택

-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인 Agenda 2000 제출
- 집행위는 10개국중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5개국과 사이프러스가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과 '98년초부터 가입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

- 나머지 5개국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하여 추가로 가입협상을 시작하는 방안 제시
- 가입신청국들의 사전준비작업 (pre-accession process)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포함

□ 1997.12월 룩셈부르크 정상회담

- EU 집행위 안 (Agenda 2000) 최종적으로 채택
- 1998.3월 EU 집행위는 사이프러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6개국과 가입작업 착수

□ 1999.12월 헬싱키 정상회담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말타 등 나머지 6개국과의 가입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2000.2월 쌍무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나. EU 가입협상 현황 및 전망

□ 2001.6.14일 개최된 고텐부르크 정상회담에서 가입대상국은 2004년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선거에 회원으로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2002년 말까지는 협상이 완료되어야 함.

□ 2002.4.22일 현재 국가별 가입협상 현황을 보면 사이프러스가 27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종료됨으로써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와의 협상이 26개 분야에서 종료 되었음.

○ 불가리아(17개분야), 루마니아(11개분야)와의 협상이 가장 부진한 상태임.

국가별 EU가입 협상 진전상황 (2002.4.22 현재)

	사이 프러스	체코	에스 토니아	헝가 리	폴란 드	슬로 베니아	불가 리아	라트 비아	리투 아니아	몰타	루마 니아	슬로 바키아
잠정 종료	27	25	24	24	23	26	17	24	26	21	11	24
협상 진행	3	5	6	6	7	4	13	6	4	8	13	6
미착 수	-	-	-	-	-	-	-	-	-	1	6	-

□ 기타 부문을 제외한 30개 협상분야에서 타결이 가장 느린 분야는 농업 및 지역정책, 금융 및 예산편성, 기구 분야임.

- 이 분야도 가입 조건의 변경없이 2002년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EU 집행위는 전망 (2002.4월)
- 협상 타결을 위해 EU는 2002년중 총 10억 유로를 지원하며 2003년에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

□ EU의 계획대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협상중인 12개국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10개국이 2004년까지 E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분야별 협상진행현황 (2002.4.22 현재) >

	사이 프러스	체코	에스 토니아	헝가 리	폴란 드	슬로 베니아	불가 리아	라트 비아	리투 아니아	몰타	루마 니아	슬로 바키아
1. 상품의 자유 로운 이동	0	0	0	0	0	0	x	0	0	0	x	0
2. 사람의 자유 로운 이동	0	0	0	0	0	0	x	0	0	0	x	0
3.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0	0	0	0	0	0	0	0	0	0	*	0
4. 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	0	0	0	0	0	0	0	0	0	0	x	0
5. 회사법	0	0	0	0	0	0	0	0	0	0	0	0
6. 경쟁법	x	x	0	x	x	0	x	0	0	x	x	x
7. 농업	x	x	x	x	x	x	x	x	x	x	*	x
8. 어업	0	0	0	0	x	0	0	0	0	x	0	0
9. 운송	0	x	0	0	x	0	x	0	0	0	x	0
10. 조세	0	0	x	0	0	0	x	x	0	x	x	0
11. EMU	0	0	0	0	0	0	0	0	0	0	*	0
12. 통계	0	0	0	0	0	0	0	0	0	0	0	0
13. 사회정책	0	0	0	0	0	0	0	0	0	0	0	0
14. 에너지	0	0	x	0	0	0	x	0	x	0	x	0
15. 산업	0	0	0	0	0	0	0	0	0	0	*	0
16. 중소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사이 프러 스	체코	에스 토니 아	헝가 리	폴란 드	슬로 베니 아	불가 리아	라트 비아	리투 아니 아	몰타	루마 니아	슬로 바키 아
17.과학 및 연구	0	0	0	0	0	0	0	0	0	0	0	0
18.교육 및 훈련	0	0	0	0	0	0	0	0	0	0	0	0
19.통신	0	0	0	0	0	0	0	0	0	0	x	0
20.문화및시청각	0	0	0	x	0	0	0	0	0	0	x	0
21.지역정책	0	0	x	x	x	x	x	x	x	x	x	x
22.환경	0	0	0	0	0	0	x	0	0	x	x	0
23.소비자 및 보건	0	0	0	0	0	0	0	0	0	0	0	0
24. 사법 및 내무	0	0	0	0	x	0	x	x	0	0	x	x
25.관세동맹	0	0	0	0	0	0	x	0	0	x	x	0
26.대외관계	0	0	0	0	0	0	0	0	0	0	0	0
27.CFSP	0	0	0	0	0	0	0	0	0	0	0	0
28.금융통제	0	0	0	0	0	0	x	0	0	0	*	0
29.금융 및 예산 편성	x	x	x	x	x	x	x	x	x	x	*	x
30.기구	0	x	x	x	0	x	0	x	0	-	0	x
31.기타												

0 : 협상 잠정 완료 X : 협상진행중 * 협상 미개시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Enlargement DG

□ 2004년 10개국이 EU에 추가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EU는 2004-2006년까지 농업, 구조조정, 행정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총 204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금년초 수립한 바 있음.

III. EU의 중.동구 진출현황

가. 수출입동향

- 동구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대부분 '95년부터 무관세) 및 EU 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대부분 2001년 1월부터 완전 철폐)를 계기로 EU와 중.동구간 교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함.

<EU의 중.동구 10개국에 대한 수출>

(단위 : 백만유로,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ES	-	-	125	210	309	1,339	1,682	2,364	2,671	2,388	3,174
LA	-	-	171	310	487	925	1,100	1,516	1,788	1,628	1,988
LI	-	-	225	478	726	1,003	1,434	2,120	2,352	2,049	2,536
PO	4,393	7,876	8,154	9,984	10,975	14,716	19,296	24,211	27,308	28,015	32,664
CZ	2,606	3,817	6,264	6,082	7,928	10,449	12,683	14,325	15,634	16,728	21,976
SLK	-	-	-	1,222	1,794	2,759	3,425	4,116	5,106	4,818	5,804
HU	2,876	3,486	4,061	4,967	6,153	7,118	8,193	11,001	14,028	15,323	19,380
RO	1,227	1,331	1,854	2,320	2,647	3,600	4,227	4,733	5,923	5,953	8,210
BU	904	1,030	1,112	1,349	1,597	1,936	1,589	1,718	2,253	2,496	3,012
SLN	-	-	1,382	3,061	3,675	4,426	4,644	5,377	5,828	5,855	6,893
계	12,006	17,540	23,348	29,983	36,291	48,271	58,273	71,481	82,891	85,253	105,637

자료원 : Eurostat

- EU의 중.동구 10개국에 대한 수출은 '90년 120억유로에서 '00년 1,056억유로로 증가하여 10년간 8.8배의 급증 추세를 보임.
동기간중 역내외 포함 EU 총수출은 2.3배 증가하여 대중.동구 수출 증가율이 EU 전체 수출증가율의 3.8배에 달하고 있음.

<중.동구 13개국과 EU와의 교역 비중>

(단위 : %, 2000년 기준)

국가명	각국 총수입중 EU 비중	각국 총수출중 EU 비중	해당국수출/ EU수입 (%)	해당국수입 /EU수출 (%)
불가리아	44.0	51.1	0.3	0.3
사이프러스	55.9	47.7	0.1	0.3
체코	62.0	68.6	2.1	2.5
에스토니아	62.6	76.5	0.3	0.3
헝가리	58.4	75.1	2.1	2.5
라트비아	52.4	64.6	0.2	0.2
리투아니아	43.3	47.9	0.2	0.3
몰타	59.9	33.5	0.1	0.3
폴란드	61.2	69.9	2.3	3.6
루마니아	56.6	63.8	0.7	0.9
슬로바키아	48.9	59.1	0.7	0.7
슬로베니아	67.8	63.8	0.6	0.9
터키	48.8	52.3	1.7	3.2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 EU와 가입을 협상중인 중.동구 13개국중 자국의 총수입에서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베니아 (67.8%)이며, 이후 에스토니아 62.6%, 체코 62.0%, 헝가리 58.4% 순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대EU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EU 총수출에서 중.동구 1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폴란드 3.6%, 터키 3.2%, 헝가리 2.5%, 체코 2.5%로 나타나, EU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낮으나, 이들 국가의 대 EU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음.

□ 2000년 EU의 가입협상국 13개국에 대한 주종 수출품목은 기계류

및 전자제품 33%, 운송장비 15%, 화학제품 9%, 섬유 8%, 기초금속 7%, 플라스틱제품 6%, 기타 7%, 제지 및 펄프 3%, 광업제품 3%, 광학 및 악기 등 잡제품 3% 등으로 집계되었음.

<EU의 중.동구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단위 ; 백만유로,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ES	-	-	95	181	266	886	1,084	1,499	1,660	1,878	3,159
LA	-	-	467	617	735	1,124	1,139	1,275	1,334	1,397	1,887
LI	-	-	442	641	750	960	1,101	1,292	1,393	1,589	2,146
PO	5,157	6,212	7,080	7,583	9,107	11,805	11,854	13,779	15,658	17,040	22,582
CZ	2,689	4,062	5,542	4,843	6,364	8,047	8,648	10,467	13,213	15,199	19,696
SLK	-	-	-	1,161	1,874	2,697	2,901	3,388	4,702	5,169	5,867
HU	2,934	3,625	3,988	3,954	4,923	6,666	7,339	9,796	12,469	15,193	18,407
RO	1,605	1,467	1,404	1,690	2,509	3,297	3,461	4,244	4,888	5,506	7,272
BU	583	752	905	951	1,343	1,796	1,662	2,020	2,147	2,166	2,980
SLN	-	-	1,586	2,866	3,422	3,852	3,799	4,086	4,515	4,510	5,291
계	12,968	16,118	21,509	24,487	31,293	41,130	42,988	51,846	61,979	69,647	89,287

자료원 : EUROSTAT

- EU의 중.동구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0년 130억유로에서 '00년 893억유로로 증가하여 10년간 6.9배나 증가함.

동기간중 역내외 포함 EU 총수입은 2.2배 증가하여 대중.동구 수입증가율은 EU 총수입증가율 대비 3.1배에 달함.

- EU와 가입을 협상중인 중.동구 13개국중 자국의 총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76.5%, 헝가리 75.1%, 폴란드 69.9%, 체코 68.6% 순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의 대EU 수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동구 13개국의 수출이 EU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폴란드 2.3%, 체코 2.1%, 헝가리 2.1%, 터키 1.7% 순으로 나타나, EU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매우 낮으나, 이들 국가의 대EU 수출의존도는 크게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음.

□ EU의 가입협상국 13개국으로부터의 주종 수입품목은 기계류 및 전자제품 27%, 섬유류 16%, 운송장비 13%, 기초금속 10%, 기타 9%, 농산물 5%, 잡제품 5%, 플라스틱제품 4%, 목재 4%, 광업제품 4%, 화학제품 3% 순임.

나. FDI 동향

<EU의 대중.동구 직접투자>

(단위 : 백만 유로,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세계	74,687	99,150	110,413	160,645	325,903	556,251
역외투자	24,129	45,580	47,412	84,730	198,235	259,320
중.동구	2,699	5,119	5,402	7,045	9,140	11,278
헝가리	839	2,102	1,073	1,565	1,537	-
폴란드	616	1,132	2,427	2,492	4,189	7,076
체코	974	1,594	1,299	1,916	1,576	2,534
슬로바키아	107	139	213	253	271	210
슬로베니아	51	68	64	99	136	226
불가리아	63	9	50	140	172	136
루마니아	49	75	136	409	437	543
에스토니아	-	-	62	73	362	232
라트비아	-	-	21	46	45	78
리투아니아	-	-	57	52	415	245

자료원 : EBRD

- EU의 대중.동구 투자는 '94년 27억 유로에서 '99년에는 113억 유로로 증가, 동기간중 4배로 급증
 - '99년 EU의 대중.동구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은행 및 통신부문의 민영화에 EU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
- '94-'99년간 EU의 대중.동구 누적투자액은 407억 유로 상당으로 EU 총역외투자의 6.17%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총중.동구 투자의 85%를 이들 3개국이 차지하고 있음.
 - 헝가리의 경우 '95년까지 최대 FDI 유치국이었으나 '95년 이후에는 폴란드가 최대 투자유치국임.
- EU내 중.동구 최대 투자국은 독일로서 EU의 '94-'99년 대중.동구 투자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네델란드(15%), 프랑스(12%), 베네룩스(6.9%), 오스트리아(5.8%), 스웨덴(4.8%), 이태리(3.8%)의 순을 보이고 있음.
- 헝가리, 체코, 폴란드 3개국에 투자한 주요 선진국 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델란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일본과 이태리가 바짝 뒤따르고 있음.
- 독일과 미국은 3개국에서 석유화학, 통신, 전기/전자, 자동차, 유통, 에너지, 섬유 및 의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FDI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전기/전자 및 자동차, 기계부품, 통신, 플라스틱, 섬유 분야에서, 프랑스는 석유화학, 통신, 전기/전자, 유통부문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2001년말 기준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총27건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분야외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투자분야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S전자는 IMF 이후 영국에 있는 컬러 TV 생산라인을 헝가리로 이전한 데 이어, 최근 헝가리에 대규모 전자 생산기지를 구축기로 결정했으며, L전자도 폴란드나 헝가리를 대상으로 백색가전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IV. EU 확대에 따른 유럽 및 일본 대기업 진출사례

가. 독일

□ 생산기지 이전

- 자동차, 기계, 전자, 섬유 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독일 기업의 생산기지를 대거 중.동구 지역으로 이전하였거나 계획중임.

- 산업 내(intraindustrial) 교역이 활발히 추진되어 양 지역간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가령, 기계의 경우 독일은 첨단 고급제품을 중동구 국가로 수출하는 한편, 중동구 국가는 일반 기계를 독일로 수출하여 상호 보완적 교역패턴이 형성, 이로 인해 독일 기업은 중동구 기업에 기술이전, 기업 컨설팅 서비스 수출 효과까지 거양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진출

- 대기업의 현지생산 체제에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로 기여함으로써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소기업은 수출 채널 및 현지 유통망 확보

□ 정부-기업 합동 프로젝트 개발

- 바이에른 주 정부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의 도나우강 유역 선박 수송망 확충 사업에 참여 (재정지원)
- 바이에른 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동 컨소시엄을 구성, 동 프로젝트에 참여

□ 철저한 현지관리

- 현지 진출한 독일 기업이 현지 기업들을 위한 용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재정위기 관리
-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현지 인력에 대한 자기개발 기회 확대
- 특히, 첨단기계,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멘스 진출 사례

- 동사는 과거 약 100년 동안 중.동구 지역과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동구 국가의 EU 가입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89년 이후 동 지역과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동 지역으로의 수출 : 약 10억 유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성장)
 - 투자 규모 : 약 1억 유로 (직접투자 점차 증가)
- 지멘스는 중.동구 국가의 정보통신분야 영업규모만 5억 유로, 연 고용인원 2,000명으로 특히 초고속 통신망과 이동통신망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2003년까지 정보통신시장 자유화 과정이 완료되면 동 지역에서의 사업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폭스바겐의 진출사례

○ 수출시장으로 중점화

- 세계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경쟁 극심
- 기존 아시아 및 미국시장 위주의 수출전략을 구매력이 급신장하고 있는 중.동구 지역으로 다변화
- 2000년 기준, 중.동구 지역으로 총 30만대 판매 (전체 판매량의 5.9%)

○ 생산기지 이전

-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폭스바겐 조립 공장,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 인수, 헝가리의 아우디 조립 공장 설립 등 중.동구 주요 3국을 생산기지로 활용
- 특히 체코의 스코다 자동차 인수는 기존의 시설 및 기술진, 물류 및 판매망을 활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거두고 있음.

나. 네델란드

□ 폴란드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여 약 600여개의 네델란드 기업들이 약 3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 네델란드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Philips사의 경우, 회원가입 후보국인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중.동구 10개국에 지사 및 공장을 설립 운영 중임.

○ Philips Lighting은 폴란드에 집중 투자하여 최근 Pila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 유럽 최대 전구 제조지역으로 발전시켰으며, CE 및 부품분야는 헝가리에, 디스플레이 부품생산은 체코에, TV 생산은 폴란드, DAP 커피 비즈니스는 폴란드, 전기다리미 생산의 일부를

폴란드로 이전한 바 있음.

- 헝가리에서의 사업은 처음에는 합작투자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다수의 단독투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필립스는 헝가리의 12개 생산공장을 통하여 CD, VCR, TV와 같은 전자제품을 제조,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음.
- 필립스는 중.동유럽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활용, 로컬브랜드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유럽 중 특히 서부지역의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소비증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commerce에도 이미 투자를 하였음.

다. 프랑스

□ 노동집약적산업 생산기지 이전 증가

- 직물 및 의류, 가구,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기업들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또는 수입비중을 확대
- 특히 직물·의류의 경우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유행에 민감한 제품 특성상 프랑스 기업들은 신제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아시아보다는 중.동부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이 경우 중.동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로의 진출 증가
- 한편, 직물 조제업체가 중.동부 유럽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협력업체들도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동반이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철강업체인 Usinor는 건축시장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폴란드에 45

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공장신설

□ 자동차 및 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 진출 확대

○특히 체코의 첨단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풍부한 고급인력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

□ 수평적 이동 증가

○중전에는 주로 프랑스에서는 고급제품생산을 특화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동유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동일품목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평적 이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가전업체인 Whirlpool France는 수직삼입형 세탁기 생산공장을 프랑스 Amiens지역에서 슬로바키아로 이전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건조기 생산만을 특화. 이는 제품 수요동향에 따른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중소기업들도 동유럽 진출관심 다대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동유럽 진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아직까지는 동유럽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만큼 서유럽보다는 경쟁기업이 적게 진출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

- 특히 중견기업들의 경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서비스부문 (리스, 고객관리, 공공기관 서비스, 가스전력공급서비스, 금융서비스)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 참여

- 다농의 경우 불가리아의 국영 유제품 제조회사 인수를 통한 동유럽 시장 진출 성공
- 프랑스 텔레콤은 2000년 폴란드 국영통신회사 TPSA 지분 (35%) 참여
- 프랑스 주요그룹들은 폴란드가 2,500여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점을 착안, 이를 통한 진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

□ 현지기업 인수 또는 지분매입 등 전략적 제휴

- 쏘시에테 제네랄 (금융) : 2000년 체코은행을 12억유로에 인수
- BNP-Paribas (금융) : 독일 Dresdner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 조인트벤처 지분매입

라. 벨기에

□ DELHAIZE 그룹

- 벨기에 2위 유통그룹인 DELHAIZE 그룹은 90년대 초기 동구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벨기에 기업으로는 최초로 체코 유통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체코에 94개(상점명 : DELVITA) 슈퍼마켓과 슬로바키아(상점명 : SAMA)에 16개 상점을 운영하고 루마니아에는 2000년 초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10개의 상점을 운영중임.

□ INTERBEW 그룹

- 세계 1,2위를 다투는 벨기에 1위이며 맥주제조그룹인 NTERBRUW 그룹도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루마니아, 슬로베

니아 등 중.동구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음.

□ UMICORE 그룹

○ 구리, 아연, 귀금속 등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로 동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인 UMICORE그룹은 불가리아의 Pirdop(지분율 96.79%)사와 Sofia(지분율 100%)사를 인수, 지사로 운영하고 있음.

□ GLAVERBEL그룹

○ 벨기에 유리생산(건물, 자동차, 공업용유리)업체인 GLAVERBEL (일본 아사이 유리그룹이 50% 이상 주식 보유)업체인 GLAVERBEL 사도 90년대 중반 체코 유리공장(Spilirec Czech)을 인수, 지사로 운영하고 있음.

□ PUNCH INTERNATIONAL

○ 벨기에 가전 부품 공급업체인 PUNCH INTERNATIONAL사는 90년대 말 필립스(고객업체)의 제안으로 슬로바키아 트라브나에 금속 부품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하고 2000년대에도 필립스의 제안으로 항거리 필립스 공장 인근 지역(Szekesfehervar)에 PUNCH PRODUCTS 공장을 신설했고 최근 파나소닉제품의 조립을 위해 슬로바키아의 United Electronics 공장을 인수했음.

마. 스위스

□ 남성/여성용 내의생산업체인 Calida사는 현재 인도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금년 이를 폐쇄하고 공장을 헝가리로 이전할 예정이다.

- 인도는 인건비는 낮으나 품질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운송기간이 길어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기 때문

- Schweizer AG는 남성용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1973년에 설립한 포르투갈 공장을 금년도에 폐쇄하고, 불가리아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신규 생산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바. 이탈리아

- 섬유, 신발, 가구 등 이태리 주요 산업분야의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목재 등 원재료 확보를 위해 중.동구에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현지 투자 실시
 - 이외 가스, 전기, 통신 등 인프라 및 은행, 보험 등 금융 부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 대한 투자가 높은 상황임.
 -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가 전체의 약 80%이며,
 - 폴란드에 대한 투자는 자동차, 은행, 금융, 건설, 금속, 화학 등 다각화되어 있음.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Fiat(자동차), Unicredito Italiano(은행), Lucchini Group(금속), Ferrero Holding(식품), Fortrade Financing(금융) 등임.
 - 헝가리에 대해서는 1990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 누적투자액이 약 15억 유로에 달하며 투자기업수는 1,000여개에 달함. 투자부문은 은행, 보험, 운송기기, 관광, 기계, 식품,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어 있음.

사. 오스트리아

- 1992-1999년간 오스트리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190억 유로였는데 이중 약 30%가 현재 EU 가입을 추진 중인 중.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특히 헝가리(9.0%), 체코(7.5%)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제조업

-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부분 동유럽권으로 생산기지 이전이 완료되었음.
- 현재는 연구기지와 물류본부 및 주요부품생산지기를 오스트리아에 두고, 단순가공 분야는 동유럽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유행하고 있음.
- 독일계 다국적 기업 Grundig 그룹도 동유럽본부 및 물류센터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근교에 두고 생산기지는 동유럽국가에 분산배치하고 있음.

□ 금융업

- 오스트리아 정부 및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금융산업을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이 활발함.
-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은 개방 이전부터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나, 오스트리아은행(Bank Austria, 민영)의 자회사인 CA International, 농협계 은행인 RZB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일은행(Erste Bank) 등 3개 은행이 진출 하였음.
- 2000년말 기준 동 3개은행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치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총 400 여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1,000명을 고용하고 있음.
-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대 동유럽투자액 57억유로 중 약 50%가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이었음.

아. 일본

□ 일본기업은 중.동구권중 비교적 인프라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서구와 동구를 잇는 지리적 잇점을 살릴 수 있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집중되고 있음.

○ 2001년말 기준 일본은 헝가리에 35개사, 체코에 25개사, 폴란드에 8개사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 분야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부품, 타이어, 통신기기, 플라스틱, 섬유등 다양함.

○ 헝가리에는 1991년도 이루어진 약 3.6억불 규모의 Suzuki 승용차 제조업 투자를 시발로 2001년말 35개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외 영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헝가리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대헝가리 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체코에 대한 투자는 1998년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해 지고 있는데 Denso Corp. 의 자동차용 에어컨 투자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에 2001년말 현재 총 25개사가 투자하였음.

V. EU 확대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요인

- 중.동구 국가의 관세율 인하 및 쿼터 폐지로 수출 증가
 - EU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EU 공동통상정책 채택에 따라 쿼타제도 폐지로 인해 대 중.동구 수출 증가

-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증대 예상
예) 헝가리의 경우 승용차 (1500cc 이하) 13% -> 3.9%, 승용차 (1600-2000cc) 23%-> 6.9%, 자동차부품 6~10%-> 3~3.5%, 트럭 25%->0%, 비디오 및 오디오 10%->0%로 인하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

- EU 확대에 의한 GDP 추가성장률이 국별로 매년 1.3~2.1%에 달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망

○제품규격 통일로 규격인증 비용 절감

- EU 공통 규격인증인 CE 마크 외에 현재 국별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가 EU 규격인증으로 통일 됨으로써 개별 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절감

☐ 부정적 요인

○반덤핑 규제,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한국산 전자제품 및 철강제품은 타격을 입을 소지

○자급자족 체제의 심화에 따른 역외무역비중 감소

- 중.동구 국가들의 교역에서 대EU 수출입 의존도는 60-70%에 이르고 있어, 이미 경제적으로 EU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EU의 중.동구 현지투자에 의한 분업체제의 강화로 확대된 EU는 자급자족 체제가 더욱 심화될 것임.

나. 우리나라 현지 투자 진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요인

○EU 수준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EU 가입으로 EU 시장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긍정적으로 작용

- 헝가리의 경우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중심으로서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금융 시스템등으로 인근 EU 국가에 대한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기회가 매우 큼
- 폴란드의 경우에도 중부 유럽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과 저렴한 숙련 노동력을 바탕으로 EU의 제조업기지화 될 것이 확실, EU 가입이 확실시 되기 전 우리의 대폴란드 시장진출은 물론 대 EU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수립에 적극적인 활용 시급

☐ 부정적 요인

- 원산지 규정 및 세관정책의 강화, 노동비용의 상승 등이 예상
 - EU가 '97.1월 도입한 범유럽 누적 원산지지역에 따르면 동지역에 속하는 국가(29개국)에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품가치의 60%가 동지역에서 창출되어야 함.
- 투자인센티브 축소
 -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시 기존의 관세자유지역 내에 위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철폐 또는 축소될 예정
- 유럽기업들의 중.동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구 국가들의 경제종속 심화

다. EU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 생산기지 확보를 통해 가격경쟁에 대응

- 중.동구로 신규 진출하거나 유럽내 생산라인을 동구로 이전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갖춘 분업체제를 구축

- 하청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자립체제를 구축할 필요

□ 대우의 생산거점 활용 모색

- 유럽 유일의 자동차 조립기반인 폴란드의 FSO 공장 활용
 - 연간 대유럽 자동차 수출 약 50만대이나, 생산기지는 폴란드 공장이 유일
 - . 메이저들 공히 생산기반 확보중
- 대우자동차 폴란드공장의 매각시 한국기업 승계 반드시 필요
 - . 폴란드내의 한국자동차 판매 현황: 2001년 6월말 현재 60만대
 - . 상당 규모의 After market 관리 및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반드시 필요

□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물류센터 조성

- 확대된 EU 경제권의 자급자족 체제 심화에 대비하고, 유럽기업들의 중·동구 현지투자를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에 적극 대응
- 경쟁체제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물품 인도기간 단축을 통한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센터 조성

□ 공급자 금융을 통한 진출 확대

- 중·동구 국가의 재정적 빈곤을 감안, 공급자 금융을 통한 진출 확대
- 유럽개발은행(EBRD)의 금융지원 최대한 활용

VI. EU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 진출유망분야

가. 수출유망분야

☐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호환성 공구류

- 제조업체 투자 확대 및 헝가리 생산 기지 거점화에 따른 소모성 공구류 수요 증가

☐ 필라멘트사 및 염색직물, 인조섬유제의 기타편직물, 면의 평직물, 편직물

- EU 기업의 중.동구 진출에 따라 섬유/직물 수요 증가추세
- 주변 동구권국가들에 비해 가격은 높은 편이나 품질면에서 EU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가격만 맞출 수 있다면 지속적 수출확대 가능

☐ 자동차용 부품 및 부속품, 승용차용 타이어

- 최근 판매가 되살아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가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EU 가입 후 현행 대비 수입관세 인하로 인해 이와 관련된 부품 및 부속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비금속제의 신변장신구, 가방

- 현지 중저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디자인 면에서 한국산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지 감각에 맞는 유럽풍 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면 시장 잠재력 충분한 것으로 평가

☐ PC, 부품 및 관련 부속품

- IT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혹은 인하로 한국산 PC 및 부품의 가격 경쟁

력이 한층 강화되어 시장 진출 여건 대폭 개선

-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에 비추어 서버 등 관련장비, 소프트웨어 수출 유망
- 성장유망하나 진출 부진한 IT 서비스 부문 (SI, SW, Network, 시스템 유지 보수, 데이터 처리) 집중 공략

☐ 환경부문 플랜트 수출

- 중.동구는 EU 가입전 기준에 환경분야를 집중 지원 예정 (총 1,200억유로)
-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각종 포장재 쓰레기 재활용,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나. 투자진출 유망분야

☐ 자동차/부품 (폴란드, 체코)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 기반 확보

- EU산 완성차에 대한 무관세 (체코는 2001년부터, 폴란드 2002년부터)이나, 한국산은 17.1 ~ 35% (체코 17.1%, 폴란드 35%)의 고관세가 적용되어 경쟁력 크게 약화
- 독일, 프랑스 등 인근 EU산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 시장 확대 한계

○무관세(폴란드) 또는 3%의 저율 관세 (체코)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여 범유럽에 공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세계 상위 100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중 약 40% 이상이 체코에 생산 또는 조립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체코)

○After Market에 대한 전략적 관리

- 대우 사태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대폭 감소 예상되나, 현재까지 판매된 60여만대에 대한 A/S 부품 수요는 지속 예상
- 아울러 노후차량 비중 여전히 높아(10년 이상 노후 차량 1/3 수준 ; 400만대) 부품 수요 지대

☐ 전기.전자

-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한 체코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고 확보에 신속한 딜리버리 시스템, 경쟁 브랜드에 대응하는 빠른 의사결정 및 하이퍼마켓 등 대형 고객의 근접 관리가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물류기지를 겸한 현지 판매법인 설립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로는 EU산과의 관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이 긴급

☐ 엔지니어링

- 체코는 한때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 역사가 있으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 중 가장 높은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인력(대학졸업생 기준) 보유국가 중 하나임
- 따라서 한국의 자본과 체코의 기술 및 인력을 결합한 합작투자 형태의 진출 유망

☐ 환경 기술 분야

- 세계 최대 환경보호 수준을 자랑하는 EU의 기준에 맞춰 수요가 막대하므로 EU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의 진출 유망

☐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에서 소요되는 플라스틱 부품 수요가
급증 추세에 있어 투자 유망